폐허에의 그리움

- 박찬론

최명표*

- 목차 -

Ⅰ. 서론
Ⅱ. '화염'의 이승과 '화엄'의 저승
1. 지독한 고향의식
2. 소시민적 무기력증의 분노
3. 불교적 상상력의 궁극
Ⅲ.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박찬의 시세계를 탐색한 글이다. 그는 등단 초부터 두터운 고향의식을 기반으로 시세계를 심화하였다. 그의 고향의식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집요한 애정을 초월하여 소외된 공간으로 의미를 확장하였다. 또 고향은 그에게 시적 상상력의 근원인 동시에, 산업화로 마멸되어 가는 도회지인들의 정신적 근거지이다. 그는 고향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할머니를 등장시키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서사화하였다. 특히 그는 정읍지역의 언어를 빈번하게 차용하여 시적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 전북대학교

있다. 이러한 박찬의 시도는 고향시편에 보편성을 배가시켰다.

박찬은 대도시의 중심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변두리에서 벌어진 소소한 일상들을 형상화하여 소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였다. 그것은 초기에 등장시켰던 고향의 무명인들이 재출현한 것이다. 그는 민중, 소시민들의 변변찮은 일들을 배경으로 장치하여 현대사를 희화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언술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근본적으로 휴머니즘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그의 포옹성은 불교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속세에 대한 초월의지로 승화된다. 그는 비록 현실을 화염길로 규정하지만, 그 길이 화엄의 세계로 들어가는 진입로 인 줄 알고 있다. 이 점에서 박찬의 고향의식은 시적 출발점이자 궁극으로 인도하는 지배소이다.

주제어: 박찬, 정읍, 고향의식, 화염길, 화엄

Ⅰ. 서론

고향은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킨다. 고향에서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 생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립과 반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화목과 우의와 단란이 가득하다. 그들은 수다판의 시간을 과거의 시간으로 소급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시간 거스르기는 담화 참여자들의 전적인 도움으로 가속화되어 경험된 시간을 고스란히 불러낸다. 그것은 사람들이 고향을 원시적이고 절대적인 집단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이력으로부터 숙성된 것이다.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고향은 세상에서 유일한 곳으로 자리매김된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곳이 고향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적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고향이 최고이며 무이한 곳이라고 우긴다. 특히 한국처럼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농촌공동체가 서둘러 파괴된 나라에서는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터전인 도회지에서의 삶이 고난일수록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위로받는다. 위로라고 해야 정확히 말하여 자기위안에 지나지 않으나,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았다고 여긴다. 그만치 고향은 사람들에게 상상의 포만감을 안겨준다.

또한 고향은 사람들에게 애증의 공간이다. 모두가 고향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 반대로 고향의 모든 것을 미워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교차하는 감정의 모순을 알면서도 고향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앞에 내세운다. 문학작품에서 고향을 노래한 작품들도 그와 다르지 않다. 작가들에게 향수는 일종의 도피기제이다. 그가 유년 시절을 구성하던 자연이나 꿈의 세계를 호출하는 충동은 고향과 관련된 작품을 낳는 심리적 기반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문학사가가 "모두가 동일한 감정과 일체의 책임과 고뇌에서 벗어나려는 동경의 위장되고 다소는 승화된 형식들"[1]이라고 가른 이유이다. 이 점에서 고향을 떠나지 않은 작가보다는, 출향한 작가가 고향을 노래하는 편이 어울린다. 왜냐하면 그라야 고향을 떠난 자를 대변하는 한편, 고향에 남은 자를 대신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중 역할이야말로 고향에 대한 애증을 작품화하는 감정의 충돌을 정지하고 질서화한다. 그의 모순에 찬 역할놀이 속에서 고향은 '고뇌'의 현실을 상쇄해주는 '동경'의 장소가 된다. 결국 문학에서 향수를 노래하는 것은 공간의 위무적 기능을 승인하는 행위에 다름 아

1) Arnold. Hauser, 염무웅·반성완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근세편·하, 창작과비평사, 1974, 204쪽.

니다. 그 대표적 시인이 박찬이다.

박찬(1948~2007)은 전라북도 정읍시 장명동의 향교 옆에서 태어났다. 그는 정읍동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소년기를 보냈고, 마을 뒤의 성황산에 오르내리기를 밥 먹듯하며 놀았다. 성장 후에 상경하여 그는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월간문학』에 시 「상리에 내리는 눈」이 추천되어 시단에 나왔다. 박찬은 시작 활동 동안에 시집 『수도곶 이야기』(문학비평사, 1985)를 시작으로 『그리운 잠』(둥지, 1989), 『화염길』(민음사, 1995), 『먼지 속 이슬』(문학동네, 2000)과 유고집 『외로운 식량』(문학동네, 2008) 등을 펴냈다. 그의 유일한 산문집 『우는 낙타의 푸른 눈썹을 보았는가』(해냄, 1997)는 실크로드를 여행하고 난 기행문집이다. 연대기에서 보듯이, 그는 더 활동할 수 있을 나이에 세상과 등지고 말았다. 더욱이 시적 성숙도가 더해지고 있어 시단의 기대를 받던 차라서 그의 부음은 문단에 충격이었다. 이제 그의 혼백이 떠난 이승에서 시의 성과를 조명하는 일에 나설 즈음이다.

박찬은 시작 생활 중에 돈독한 고향의식을 배후 정서로 활용하며 서정을 시화하느라 고심하였다. 시인의 고향의식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집착일 터이고, 작품에 출연시키는 일이야 놀랄 일이 아니다. 더욱이 그가 출향인인 바에는 예삿일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시인들은 고향 사랑을 늘 그막에 표출한다. 그러나 박찬의 경우에는 유별나다. 그는 시집을 출판할 적마다 정읍을 노래한 시편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런 경향을 두고 간단히 그의 시를 배태케 해준 고향에 대한 예의라고 치부할 수 없다. 고향은 그에게 시적 상상력의 근원인 동시에, 경제 개발의 부작용으로 마멸되어 가는 도회지인들의 정신적 원형이 살아 있는 곳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고향은 한국 사회의 편중된 경제 개발의 여파로 소외된 곳이어서 의미가 범박하지 않다. 박찬은 고향시편을 통해서 “앙금처럼 가라앉는 속 깊은 이야기”(「耳順의 강」)를 길어 올리고 있다.

Ⅱ. ‘화염’의 이승과 ‘화엄’의 저승

1. 지독한 고향의식

여느 사람들과 달리, 고향은 시인에게 일종의 강박장애로 호명된다. 시인은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 같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곳이라고 단언한다. 그런 탓에 고향은 항시 과거 속 장소로 존재할 뿐, 현재적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다. 시인이 고향을 부르면 부를수록 고향의 부재는 강조되고, 부재한 고향은 시인의 현실적 욕구불만을 위무한다. 고향은 삶에 지친 시인의 도피처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생의 의지를 고양시켜주는 에너지의 공급처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향의 중층적 기능은 관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까지 담당하는 고향이란 시인에게 시의 궁극이기도 하지만, 유아적 꿈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시인은 생의 돌발 국면마다 억압된 꿈의 편린을 노출시킨다. 그것은 시인의 내면에 각인된 원시적 질서의 실체를 담보하고 있다.

박찬은 문단에 데뷔할 때부터 고향을 노래하였고, 시집을 낼 적마다 고향과 관련된 시편을 빼놓지 않고 삽입하였다. 그가 낭만주의자라는 점은 자신의 온갖 괴로움과 애환을 씻어주는 만족스러운 공간으로 고향을 설정하는 데서 확인된다. 그런 탓에 그는 미래시제로 말하지 않는다. 그의 시편에서 고향의 언어는 전부 과거시제이다. 고향이라도 개인에게 안 좋은 기억도 안겨주는 것이 당연할 터이나, 박찬에게 정읍은 “생각지 말아야 할 어제같은 오늘”(「그리고 비는 내리고」)의 우울도 문제되지 않는 소도처럼 천부적으로 신성한 곳이다. 그가 무시로 고향을 생각하고, 그곳을 예찬하기에 품을 들이는 이유는 할머니와의 비밀한 서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랫방 정지 굴뚝 옆에 누가 심지도 않은
오동나무 한 나무가 자라났읍니다
실하게 성큼성큼 자라는 나무를 보고 대견한 듯
할머니는 잔 잎 가지 쳐 주며 매일같이 보살폈읍니다
… (중략) …
오동나무가 아랫방 지붕을 덮고 전봇대 중키만큼 자라자
할머니는 죽으면 관이나 짤란다고 하였읍니다
어느 쯤 자라기를 멈추기라도 한 듯 오동나무는
옆으로 옆으로 살만 찌고 추워 오돌거리면서 더 바짝
정지 굴뚝에 뽀작거리다 굴뚝을 비스듬히 밀어재끼고 있을 때
이젠 웬만큼 된 것 같다며 할머니는 잘라 말리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러기를 몇 해
마당 모퉁이에 굴러다니던 나무를 켜기도 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읍니다
그러나 군에 나간 손주 외에는 아무도 그 나무를
할머니가 관감으로 잘라 논 것인 줄 몰랐읍니다
그날 밤 부터 밤샘하던 문상객들 밤공기가 차다며
조금씩 패 불사르기 시작하더니
삼일 밤낮으로 모두 패 때버려 마당에 수북히 재만 남겨놨읍니다
연기는 안채로 바깥채로 할머니 누워계신 방으로 지붕으로
골고루 피어오르다 몽실몽실 꿈같이 달아나 버렸읍니다

휴가 나온 손주 그 얘기 듣고 바람에 날리는 잿더미를 보고 있을 때
아랫방 정지 굴뚝 옆에 누가 심지도 않은 오동나무
또 한 나무가 자라나고 있었읍니다

-「수도곶 이야기·1」[2] 부분

'수도곶'은 정읍향교 옆에 자리한 시인의 고향마을이다. 정식 명칭이야 향교 옆 마을이니 명륜동일 터이다. 그는 이곳에 대한 애정을 공공연하게 표출한다. 인용한 바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그의 '수도곶' 연작은 하나같이 서사를 내포하고 있다. 어느 날 오동나무가 돋아났고, 할머니는 손자에게 '죽으면 관이나 짤란다'고 말하며 애지중지 가꾸다가 죽었다. 군대 간 손자만 알고 있던 할머니의 바람은 문상객들이 땔감으로 써버리는 통에 재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오동나무가 베어졌던 '아랫방 정지 굴뚝 옆에 누가 심지도 않은 오동나무'가 다시 돋아나서 조손간의 서사가 계속될 것을 암시한다. 할머니와 손자 간의 비밀은 '또 한 나무'에 의해 역사적으로 전승된다. 박찬이 노래하는 고향시편이란 모두 할머니의 신산한 삶을 시적으로 발언한 폭이다.

박찬의 수도곶 연작에 "고향을 떠올리면 맨먼저 할머니가 보입니다"(「수도곶 이야기·15」)라는 고백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할머니에 대한 시인의 사랑이 덕지덕지 묻어 있다. 어느 할머니나 예로부터 손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로 소문난 바이거니와, 박찬의 할머니는 고향의 오동나무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할머니의 존재는 입대한 손자와의 서사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손자는 할머니를 그리고 기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명분을 획득한다. 할머니의 주름에 각인된 고향의 역사는 수도곶 연작시를 생산하도록 손자를 추동하여 마침내 시편으로 형상화된다. 즉, 박찬은 할머니의 존재에 힘입어 시업을 계속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신인 시절부터 고향의 사연을 표면화한 것은 기대와 어긋나지 않는다.

2) 박찬, 『수도곶 이야기』, 문학비평사, 1985, 15~17쪽.

바람도 제 갈길을 잃고 스러지는 골짜기
무슨 부끄러운 몸뚱아리 감추려고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헤매는 魂魄 거두어 가려고
하늘의 門 열어놓고 흐느끼는가

무슨 흉한 징조로 대꽃은 피고
音程을 잃고 찢어지는 하늘

매운 고추 냄새도
아린 손끝도 아랑곳없던
물맛같은 백성들
흔들리는 어깨 위로 떨어지는 천둥번개여
黃土, 질척거리는 땅바닥에 코박고 죽은 하늘이여

보드랍던 新綠의 숨결
대숲은 마른 피바람 소리만 웅웅거리고
屍身들의 서걱이는 발자욱 소리 들려오는

上里마을 내리는 안개는
부끄러운 이 땅의 설운 魂들이
하늘까지 쳐 놓은 하얀 帳幕인가

-「上里마을 내리는 안개는」[3] 전문

3) 박찬, 『수도곶 이야기』, 문학비평사, 1985, 12~13쪽.

박찬의 등단작이다. 상리는 일찍이 서정주의 명편 「上里 果園」에 등장하는 곳이다. 그러나 박찬의 시에서 상리는 "암울하고 불길하고 불안한 안개 속의 마을"[4]이다. 그 의문부호는 정읍사람들이 상리라는 동네를 인식하는 줄 알게 되면 금세 풀린다. 상리는 시인의 고향 장명동과 내장산의 사이에 위치한 곳이다. 정읍사람들은 동편에 자리한 내장산이 구름으로 자욱해지면 비가 온다고 예보한다. 나아가 내장산이 산봉우리들로 이웃한 순창의 회문산, 담양의 추월산 등을 한데 호출하면, 더 이상 단풍의 명산 내장산이 아니다. 그곳은 역사의 비극적 장면들이 구비마다 묻혀 있는 상흔의 공간으로 자리를 바꾸어 대두된다. 정읍사람들은 상리를 거쳐야 내장산의 골마다 은닉된 역사적 잔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상리는 역사의 길목이고 어귀인 셈이다. 더욱이 상리는 산사람들이 내려오고 올라갈 적마다 지나치던 곳이다. 그러므로 상리에 안개가 내리면 궂은 일이 생긴다. 또 '대꽃'은 예로부터 흉사를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이다. 평생 동안 혹은 60여년 만에 핀다는 대꽃은 정읍사람들에게 큰 재변이 일어날 기미를 알려주는 흉화일 따름이다. 이처럼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인은 등단하였다.

하지만 시편의 어디에도 역사적 사건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시인은 주변을 맴돌며 '흉한 징조'만 묘사하다가 '물맛 같은 백성'에 이르러 '상리 마을에 내리는 안개'가 상리 주민들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설은 魂들'의 것인 줄 말하기 시작한다. 이윽고 '대숲의 마른 피바람소리'와 '屍身들의 서걱이는 발자국 소리'가 주인을 시사하고, 안개는 그들이 '하늘까지 쳐 놓은 하얀 帳幕'이 된다. 그러나 안개는 소리를 포획한 채 소리의 주인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한번도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4) 박진환, 「『수도곶 이야기』의 시세계」, 『수도곶 이야기』 해설, 문학비평사, 1985, 116쪽.

이름없이 산화한 민초인 셈이다. 이처럼 안개는 갑오년과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생긴 원통한 혼령들이 상리마을에서 내장산 방면으로 쫓겨 간 무리들의 흔적을 좇아 내린다. 자연현상에 불과한 안개에 개재된 역사의 비극이야말로 박찬 시의 출발점이다. 그에 따라 그의 시에서 도처마다 역사의 주름이 남아 있는 정읍의 정체성이 강조될 기미는 농후해졌다. 그것은 우선 시어의 선택과 배열에서 쉬 찾아볼 수 있다.

뽀작뽀작—「수도곶 이야기·1」
노란 서숙—「수도곶 이야기·3」
생교 고지기네—「수도곶 이야기·4」
꽹매기 앞세워 마당밟기를 하고—「수도곶 이야기·5」
사슴프레—「태인댁」
오사허게—「겨울밤」
울 할매—「가을풀」
풀, 사이로 넘나드는 때때시뿐이네—「개망초」
뙤약볕에 채알치고—「산사태」
깨굴창—「불영사에 가서 보다」
포리똥 익어가는 시절—「미황사」
눈감땡감—「내가 드디어 곰이 되다」
어서리 없어—「쪽편지」
간지럼나무—「배롱나무」
비얌이야 비얌!—「때깔밭엔 뱀이 산다」
떠들었던 서쪽 하늘이—「무제」
내일은 큰 바람 불란갑다—「저녁노을」
싸목싸목 가면 되지 않겠니—「귀가」
거시기 허네—「거시기」

포도시 보일똥 말똥 허는 세월인디—「포도시」

위에 거례한 시어들은 순도 100%의 전라도 정읍말이다. 인용례를 읽으며 무릎을 치거나 환히 웃는다면, 그는 반드시 꼼짝 못하고 부인할 수 없이 영락없는 정읍사람이다. 위 낱말들 중에는 중세 국어의 흔적인 것도 있고, 다른 낱말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표준어로 등재된 말도 있다. 무릇 말은 언중들의 생활에서 밀려나지만 않는다면 생명은 영원하다. 전라도말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 낱말의 어원/원형을 살필 수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다. 다른 방언에 비해 전라방언은 온전히 보전되어야 할 합당한 근거를 무수히 거느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인이 의도적으로 탯말에 해당하는 정읍말을 두루 시어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것은 박찬이 고향에 대한 애정이 특출하다는 것 외에, 시어로 재활용하기에 적합한 사투리/옛말을 찾아 나선 남다른 언어감각의 소유자란 점을 적시하는 예이다.

박찬의 귀소욕은 "깜밥 긁어 먹다가 녹숟가락 분지르고"(「수도곶 詩篇」)에서 보듯이, 어릴 적에 저질렀던 사건의 회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곧이곧대로 말하여 '깜밥'과 '누룽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요새 사람들의 분별없는 언어감각은 정읍사람으로서 크게 나무랄 일이다. '깜밥'은 솥단지로 밥을 하던 시절에 어머니가 아이들의 간식용으로 밥을 약간 눌려서 만들었다. 먹고 살 게 부족하던 때, 어머니들은 누룽지 거리를 남겨 두면서도 자식들의 군입정으로 밥을 약간 눌렸던 것이다. 그 와중에 밥이 까맣게 타니 까만 밥이 되어 '깜밥'이다. 어머니는 전량 깜밥으로 긁지 않고 누룽지감으로 조금 남기거나, 숭늉을 끓일 양으로 약간량을 남겼다. 그런데 요샛사람들에게는 깜밥도 누룽지요, 누룽지도 누룽지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용례는 도작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몰상식적인 것이어서 당혹스럽다. 박찬이 태어난 정읍은 호남평야의 중심지

인 까닭에, 당연히 깜밥문화가 발달한 곳이다.[5] 그는 바르지 못한 용례를 바로잡는 한편, 누천년간 전승되어 온 쌀문화의 세세한 결을 옹호하고 싶었던 셈이다. 이처럼 그의 시에는 옛 문화의 숨결이 되살아나 있어서 값지다.

박찬의 장소애는 특출나서 작품의 도처에 정읍의 지명이 돌출한다. 예를 들어 수도곶, 구태인, 북면, 말고개, 초강벌, 내장산, 서래봉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명들은 작품의 리얼리티를 담보하는 한편, 시의 정조를 더욱 고즈넉하고 촌스럽게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수행한다. 지명의 헌신적인 기여에 힘입어 박찬의 시작품들은 추억을 적층화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집단기억을 오늘에 되살리게 된다. 고향을 환기하는 매개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이에게 고향은 청각으로 환기된다. 이미륵의 명품『압록강은 흐른다』에는 옆집의 소설책 읽는 소리에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처럼 특정한 계기에 의해 작가는 애절한 고향 심상을 빚는다. 박찬에게 고향은 엿장수의 가위질소리로 추억된다. 어린 시절에 동네골목을 요란하게 울렸던 "땐시기 땐시기 땐 땐 땐시기"(「수도곶 詩篇」)는 동향인들의 죽은 기억을 깨우는 소리이다. 시인은 엿장수의 리드미컬한 가위질소리로 고향의 음향을 회상하도록 자극하여 동년배들을 불러 모은다. 그들은 동일한 추억을 매개로 유년기의 공간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확보한 원초적 시간은 생의 물리적 시간을 제척하고 시적 공간의 도움으로 변모된다.

5) 그와 함께 호남사람들이 '벼'의 명칭을 성장 단계에 따라 '볍씨-모-나락-쌀' 등으로 달리 부른 것도 도작문화권에서는 당연한 '구별짓기'이다. 농부들은 나락농사가 잘 되었다고 말하지, 서울사람이나 기자들처럼 쌀농사가 풍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벼농사보다는 나락농사, 논농사라고 부르는 경향도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자잘한 세목들은 언어에 아로새겨진 문화의 결을 증거하고, 후인들로 하여금 선인들의 문화에 대한 집요한 천착과 보호를 강요한다.

그곳에 가면 깔깔대는 아이들 웃음소리 들린다
간지럼나무, 간지럼을 태우다가, 저 먼저 간지럼타 자지러지는
진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는 목 백일홍.
한여름, 가을 햇살같이 서언한 햇빛 아래, 배롱나무는 아이들이 그립다.

-「배롱나무」[6] 부분

정읍지방에서는 배롱나무를 간지럼나무로 부른다. 옛날부터 무덤가에 두루 심거나, 동네마다 흔하여 아이들이 올라가 놀던 나무이다. 박찬이 이 나무를 굳이 정식 명칭이 아닌 토박이말로 부르는 이유인즉, 정읍이라는 공간표지를 강조하려는 의식의 확장일 터이다. 게다가 배롱나무는 '간지럼나무'라고 불러야 그 나무를 못 살게 간질이며 뛰노느라 '깔깔대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배롱나무라는 이름이야 백일홍의 말장난에 다름 아닐 터이지만, 그것이 '배롱나무'라는 무감각하고 객관적인 이름으로 불릴 때, 아이들은 그 나무를 돌 보듯이 외면한다. 아이들이란 나무도 또래인 양 간지럼 태우며 놀아야 직성이 풀리는 족속이다. 아이들의 웃음이란 이처럼 구술적 세계 혹은 구어체적 언술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절로 터진다. 그처럼 한 나무를 두고 간지럼나무/배롱나무라고 부르는 주체에 따라 웃음의 유무가 결판난다. 고향의 삶에 기반을 둔 박찬의 언어 감각은 "자연과 산업사회에 밀려나 있는 마을의 비극적 삶의 맥락이 융합되어 그 특유의 미학을 보여준다"[7]는 평을 이끌어낸다. 박찬이 의도적으로 토박이말을 사용하는 이유인즉, 언어에 각인되어 있는 문화적 사연을 지키고 싶은 소박한 바람에 있다. 곧, 그의 지독한 고향

6) 박찬, 『먼지 속 이슬』, 문학동네, 2000, 79쪽.
7) 문덕수, 「서」, 박찬 시집 『수도곶 이야기』, 문학비평사, 1985.

사랑은 정읍에 대한 경의를 초월하여 전통적인 공동체문화에 대한 향수에 다름아니다.

2. 소시민적 무기력증의 분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지방 세력들이 점령한 유일한 곳이다. 전국의 어느 고장도 타지인들의 비율이 서울처럼 높지 않다. 그것은 군사정권에 의한 일방적인 경제개발이 야기한 성과로, 서울은 각지의 청년들에게 '출세한 촌놈'의 꿈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더욱이 좁은 땅넓이가 소화하기 벅찰 만큼 과도한 인구밀도는 서울집중화 현상을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이다. 전후의 베이비붐이 일정 부분 악현상을 일으킨 배후였으나, 산업화의 여파로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서울은 가능성의 도시였다. 특히 군사정권이 '임해공업지역'이니 '내륙공업지역'이니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특정 지역의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소외된 지역민들의 후손들은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고 변두리 생활로 내몰렸다. 예컨대 성남시로 대표되는 주변부 중소도시는 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팽창한 위성도시이다. 그처럼 군사정권이 뿌린 죄악의 씨는 서울의 외곽을 숙주로 삼아서 자라나면서 온갖 모순과 문제점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박찬은 상경한 사람답게 서울의 변두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그는 "도시에서의 나의 일상적인 삶은 별로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머리말」, 『우는 낙타의 푸른 눈썹을 보았는가』)고 선언하고, 당시로서는 서울의 변두리에 해당하는 화곡동 사람들의 삶을 포착하여 시화하느라 부심하였다. 그의 노력은 전주 출신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연작과 함께, 중심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변두리 소시민들의 일상에서 벌어진 소소한 일들을 형상화한 범례로 손꼽힌다. 박찬이 힘없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에 관심을 쏟게 된 것은 시작 초기부터 예비된 것이다. 그는 일련의 수도곶 시편들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켰거니와, 그들은 독자적인 성격을 내세우며 촌놈들의 이미지를 심화하기에 제격이었다. 그것은 곧 인물의 보편성에 해당하는 바, 비극적 장면을 수반하며 시편의 분위기를 우울하게 조성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극성은 "하나하나가 모여 공동체적인 삶을 형상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8]는 점에서, 소시민으로서 겪게 되는 우울한 일상마저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業家가 業者가 되어 돌아오던 날
아내는 배가 아팠다
딱총사건 이후 경제는 낙엽처럼 떨어져 가
주머니 속엔 부스러진 잎사귀만 가득
멋적게 대문을 들어서는 내게
핼쓱한 얼굴로 멋적게 맞다가 아내는 배가 아팠다
초여름 낮의 길고 긴 병실 앞에서
오락가락 풋내나는 담배만 맥없이 사루고
「공주가 더 예쁘죠」 담당의사의 목소리가
한 귀에서 한 귀로 바람처럼 스쳐간다

-「禾谷洞·1」[9] 부분

인용시는 (실)업가가 (실)업자가 된 날, 하필이면 아내의 출산이 이루어졌던 가슴아픈 사연을 담고 있다. 가장의 사업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8) 정한용, 「이야기 형식을 통한 존재의 탐구」, 박찬 시집 『그리운 잠』 해설, 둥지, 1989, 123쪽.
9) 박찬, 『수도곶 이야기』, 문학비평사, 1985, 98쪽.

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듯하다. 시편의 배후에 원경으로 장치된 '딱총사건'은 10·26사건의 은유이다. 알려진 대로 그 사건은 정치지향적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 하극상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의 장래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게 되어 화폐가 '주머니 속엔 부스러진 잎사귀'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 사정은 암담해져 갔다. 박찬은 정치적 사건을 현대사의 커다란 사건을 '딱총사건'으로 칭하며 희어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노림수는 정치적 사건이란 크고 작은 규모를 떠나 가장에게 가장 중요한 득녀 사실조차 '한 귀에서 한 귀로 바람처럼 스쳐'가도록 범부의 일상생활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박찬의 '화곡동' 연작은 "자본주의 성숙 과정에서 노정되는 여러 사회적인 모순들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그것을 인간 옹호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10]는 고평을 받았다. 이 연작시편들은 사회적 현상을 외부 환경으로 거론하면서도, 진정으로는 따뜻한 휴머니즘적 시선을 배면에 장치하고 있는 가작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30년간에 걸친 정치군인들의 권력에 대한 병적 집착은 한국 사회의 전 부면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는 인권의 경시와 법률적 가치의 외면으로 국민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들의 권력욕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패권을 세습하려는 추악한 행태로 계승되었다. 군인들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획한 범주 내에서 "사육되는 자유"(「인디언 보호구역」)와 "뿌리깊은 유전질의 순응"(「반응」)을 강요했다. 가령 이름조차 방정맞은 '긴급조치'는 초헌법적 명령으로, 국민들의 천부적인 인권까지 국가의 폭력적 조치로 제한할 수 있었다.

10) 오세영, 『변혁기의 한국시』, 새미, 1996, 47쪽.

그로 인해서 모든 국민은 유언비어 유포의 혐의와 불온한 회합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국민 상호간에는 불신 풍조가 팽배하게 되었다. 그러는 중에도 군부는 국민들에게 "25일만 기다리는 우리들의 생활에 늘상 있음직한 자유로운 착각"(「禾谷洞·9」)을 강요했다. 집권층의 논리만 선하고, 다른 논리는 모두 악이 되고 마는 참담한 세상이 정녕 이 나라에 존재했었다.

불을 켜고 자야 하리
늦은 밤도 대낮같이 불을 켜고 자야 한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놓치지 말고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귀를 쫑긋 세우고 불을 켜고
자면서도 올빼미같이 눈에 불을 켜고 자야 하리

—아내야 불을 꺼야 잠을 잘 수 있다는 아내야
우리 불을 켜고 사랑을 하자
어두운 곳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다

– 「어둠에 관한 症狀」[11] 부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박찬에게 소리는 고향의 아늑한 풍경에서 들려온다. 그러나 인용시의 문맥을 보노라면, 소리 때문에 그는 '늦은 밤도 대낮같이 불을 켜고 자야 한다'. 더욱이 '불을 꺼야 잠을 잘 수 있다는 아내'에게 부부행위조차 '불을 켜고 사랑을 하자'고 말할 정도로, 그는

11) 박찬, 『수도곶 이야기』, 문학비평사, 1985, 61쪽.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 팔베개 해주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며 가슴팍을 파고들던 아내"(「내가 드디어 곰이 되다」)에게 '어두운 곳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의 불안감은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침실까지 장악한 감시망의 위용을 드러낸다. 이미 "세상은 큰 새장"(「사랑의 변증법·1」)이 된지 오래였고, 도시는 "숨기에 적당한 곳"(「소묘·5」)도 아니었다. 그 시절에는 한국의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범인은닉죄가 적용되었고, 당국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그의 취업은커녕 부모조차 직장에서 해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불안을 전국에 조성한 군부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으면 자신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정부였다.

박찬처럼 언론계에 종사하는 지식인의 불안감은 무능력에 대한 자의식으로 변모하기 마련이다. 그는 국민들의 뜻을 묻지 않은 채 긴급한 조치가 횡행한 조국에서 '언론직필'의 언론인이 되지 못한 "의식의 감옥"(「꽃 한 송이」) 속에서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 감정이 그에게 서울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회억하도록 추동한다. 그 이중적 감정의 교차 속에 시인의 현실과 이상이 알력한다. 그 끊임없는 마찰은 개인의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줄 당시의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었다. 대저 그 시절을 산 젊은이라면 "내 젊은 날의 슬픔은, 짐짓, 인생을 모두 알아버렸다는 것"(「밤의 강가에서」) 때문에 쓸쓸했다. 젊은이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 조국은 청춘을 차압하고서도 당당했고, 청년들은 받은 것 없는 조국이나마 몸을 바쳐 사랑했다. 그 와중에서 뜻있는 청년들의 감수성은 마모되거나 각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일집단을 제 의지대로 분열시키고도 국가는 젊은이들에게 충성만 요구할 정도로 뻔뻔했다.

한 삼십 년 서울에 살다 보니 이젠 대충 서울 사람 다 된 것 같다

는 아내를, 짐짓, 밤마다 품에 안아도, 나는 영, 공중에, 붕 떠 있네
땅에 뿌리 박지 못하고
뻗어 가는 마디마다
칼칼한 공기로 숨을 쉬는
공중뿌리.
허연 속살, 다 보이며
용케도 살아내는 허방다리

이보게, 고향이란 무엔가
소리만 들어도 새색시마냥 가슴 설레고
숨차 오르는, 말만으로도 그리운, 고향이란 도대체 무언가!

- 「공중뿌리」[12] 부분

박찬은 삼십년이나 살았으면서도 서울사람이 되지 못한 '공중 뿌리'이다. 그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기에 '땅에 뿌리 박지 못하고' 붕 떠 있다는 표현을 얻었을 테지만, 정착민으로 귀화하지 못한 처지를 비유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도시의 일상에서 고향의 원형을 갈망하는 이중적 모순성"[13]은 박찬의 시작품에서 두루 발견된다. 그것은 다음 연에 이어 나오듯이, 귀향의지 혹은 사향심이 극대한 그가 서울사람으로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 탓이다. 그는 "그나저나 이놈의 화곡동도 떠야 할까 보다"(「禾谷洞·6」)고 속마음을 내비치지만, 반듯한 직장을 버리고 낙향하기도 쉽지 않은 게 소시민들의 처지이다. 고향이란 '숨차 오르는, 말만으로도 그리운' 것이 분명하지만, 서울에서 성공하지 못한 시인을 반겨줄 리

12) 박찬, 『화염길』, 민음사, 1995, 88쪽.
13) 홍용희, 「영원히 그리운 것은—박찬의 시세계」, 『대지의 문법과 시적 상상』, 문학동네, 2007, 344쪽.

만무하다. 곧, 고향은 그의 관념 속에서만 온전한 행복의 처소이며 영혼의 안식처인 셈이다. 시인은 "우리가 기억하는 동안은 어제도 오늘도 다 꿈같은 흐름"(「꿈같은 흐름」)이라고 애써 자위하지만, 그것은 서울살이에 실패한 촌놈의 넋두리일 뿐이다. 시인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3. 불교적 상상력의 궁극

박찬의 시작품을 읽노라면, 유달리 불교와 관련된 작품들이 눈에 띈다. 그의 여행이 대부분 사찰 기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절을 찾아다니면서 시작 상상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 그에게 끼친 불교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예컨대, 그의 시에서 사찰명이 드러난 작품은 「원적암」, 「백담사에서」, 「백담사 계곡」, 「백담사 강론」, 「운주사, 와불」, 「개암사, 수선화」, 「불영사, 달개비꽃」, 「불영사에 가서 보다」, 「겨울, 석남사」, 「미황사」, 「미황사에 가서」 등이다. 그 말고도 「산사에서」, 「산사」처럼 절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편들과 "개화산 미타사 미륵불"(「개화산에서」)같이 내용상으로 불교적 색채를 내포한 작품까지 아우른다면, 박찬의 시세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불교적 상상력은 광막하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유일한 산문집 『우는 낙타의 푸른 눈썹을 보았는가』가 실크로드의 사막 기행담이란 사실과 맞물려 그의 내면에 깊이 꽈리를 튼 "비켜 흐르는 빛 물살에 적시는 하얀 적막"(「가을밤」)의 세계로 인도한다. 적막은 "허한 곳마다 항상 채우는 보이지 않는 흔적 같은 것"(「사랑」)이다.

> 젊은 날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돌아다닐 때 버스에서 만난 한 여자가 물었다 혼자 다니면 외롭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혼자 다니면 왜 외로울 거라고 생각할까……혼자는 외로운 것일까……나는 늘 혼자

였는데……그래도 외롭다는 생각은 한 적도 없는데……그런데 오늘 문득 한 생각 떠오른다……이제는 가도 되겠다……조용히 돌아가도 되겠다 싶다……누구도 귀찮게 하지 않고 슬그머니 가기 참 좋은 때인 것 같다……는……

– 「적막한 귀가」[14] 부분

박찬은 동행을 서두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늘 혼자였'으므로 "나는 그냥저냥 가는 둥 마는 둥 갈라요 장다리밭에 노닐며 장다리꽃 따먹다 아지랑이 어질어질 나비 따라 가다가 뒷동산에 올라 삐비도 뽑아먹고 송홧가루 얼굴에 분칠도 하고 아카시아 훑어먹다 들에 내려 자운영 다북숲 논두렁에 앉아 꼴린 보릿대 꺾어 보리피리 만들어 삘리리 불며 놀다 갈라요"(「인생아!」)라고 말한다. 그는 "눈감땡감으로 갈 수 있는 집"(「귀가」)이기에, 열거한 곳에 들러서 노닐다가 '싸목싸목'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하지만 그 장소는 공히 어린 시절의 놀이터이다. 즉, 시인은 만보를 통한 생의 유년기를 반추하려는 욕망을 보여준다. 이 점은 박찬의 유아어 '싸목싸목'이 거느린 의미망을 헤아려 보면 확연해진다. 이 싸목싸목은 두 가지 어의를 갖는다. 하나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가 동행자의 의지에 반하고자 고의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것이다. 박찬의 시어는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

박찬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여름방학만 되면 나는 또 좁디좁은 우리 땅덩어리를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방학이 끝날 때까지 내내 돌아다녔다"(「실크로드, 내 전생의 땅」)고 고백한 바 있다. 그의 유랑벽은 어린 시절에 동네 뒤에 있는 성황산을 오르내리면서부터 몸에 밴 고질이다. 일생을 떠

14) 박찬, 『외로운 식량』, 문학동네, 2008, 66쪽

돌았던 그는 "이제는 땅만 보고 걷겠다 별만 보며 걷다가 굴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고 싶지 않다 즌데를 디디다 튀는 구정물 때문이 아니라 그 동안 너무 많이 넘어져 허우적거렸으므로 이제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으므로"(「밤길을 걷다」) 천천히 걷겠다고 다짐한다. 박찬의 만보는 '누구도 귀찮게 하지 않고 슬그머니 가기 참 좋은 때'를 물색하면서 계속된다. 그가 불교와 친연성을 드러낼수록 현세데 대한 허무의지가 도드라진다. 차라리 사후세계를 예상한 것마냥 그는 후기에 접어들면서 불교적 상상력을 빈번히 발휘하였다.

이제,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저 나무를 자를 수는 없다
곱게 자라는 풀들을 파헤칠 수는 없다
살아서 힘겹게 내 자리를 마련했듯
지금 펄펄 살아서 꽃피우는,
나무와 풀들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썩어 없어질 육신은 불살라
산에 들에 강에 뿌리고, 고시레…….
새들이, 고기들이 섭취한 배설물로
자연스레 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둥둥 떠도는 흰구름으로, 연기로,
나의 흔적을 지워나가야 한다

– 「火葬」[15] 전문

15) 박찬, 『화염길』, 민음사, 1995, 83쪽.

박찬은 '이제,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나의 흔적을 지워나가야 한다'고 내외에 선언한다. 그의 다짐은 이승에서의 고단한 삶을 버리고 '새들이, 고기들이 섭취한 배설물로' 변하기 전에 놓여 있다. 그는 그것을 '나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듯하나, 아직 '없다'와 '안 된다'는 부정어를 통해서 "업장 같은 그리움의 두께"(「꽃을 꺾어 던지다」)를 청산하지 못한 줄 고백한다. 그의 솔직한 고해성사는 삶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질긴 것인지를 증명한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지도 않았으면서 주검을 처치하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 자신의 육신을 죽음 앞에 길들이고 있는 박찬의 자세는 수도승같다. 그가 '나의 흔적'을 '火葬'으로 처리하라고 부탁하는 것은 "죽으면 화장을 해달라"(「수도곶 이야기·2」)던 할머니의 유언을 잇는 행위이다. 그는 '둥둥 떠도는 흰구름으로, 연기로,' 천지간을 떠돌 운명조차 "아스라한 저편의 풍경들"(「산령(山嶺)을 넘으며」)로 인식한다. 마치 "철없이 흘리고 간 군침 자국들"(「석류」)처럼 육신은 이 생에서 잠시 빌려 썼던 무의미한 꺼죽일 뿐이다.

박찬은 그 찰나의 멈춤 속에서 그는 대상을 포착한다. 그의 시적 감수성은 움직이는 대상보다 멈춰진 순간에 빛을 발한다. 그 순간에 시인은 사위를 관찰하고 자연과 조응하는 대상의 질서와 단면을 채취한다. 이처럼 그는 "대상에 대한 소란스러운 매달림이 아니라, 사고가 움직이는 곳에서 찾아낸 어떤 기억, 몸이 움직이는 곳에서 마주치게 마련인 어떤 풍경 앞에서의 순간적인 머무름"[16]에 중점을 둔다. 이처럼 그가 대상에 대한 시선을 머물고 고정하는 자세를 보노라면, 앞서 살펴보았던 오랜 여행 경력의 산물인 줄 헤아릴 수 있다. 세상의 풍경을 단면으로 읽는 방법은 내면화시켜준 여행은 박찬과 불교의 친연성을 강화시켜주었

16) 홍정선, 「마음의 행로를 따라가는 시」, 박찬 시집 『화염길』 해설, 민음사, 1995, 110쪽.

다. 그의 고유한 독법은 세계의 부분적 서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장르적 속성을 살리기에 제격이다. 아래에 인용하는 시편은 그 보기이다.

등굽어 찌든 할망이, 가랑빗속
미끈거리는 산비탈을 기어오른다

억수 같은 빗발이라도
저 푸른 火焰을 잠재우진 못하리
불을 보려 함인가, 할망아!
세월의 더께에 남루한 육신을 끌고
위태한 산비알을 오르는 할망.

큰 나무는 오래 타고, 밤새 내리는 빗속에서
잡목들이사 잘려져 쏘시개가 된들 어떠리
큰, 한, 나무, 불사르기 위해
온 산이 붉게 물들었다.

-「열화의 길」[17] 전문

한 노승의 다비장을 시화한 작품이다. 하지만 건성으로 읽으면 작품

17) 박찬, 『화염길』, 민음사, 1995, 15쪽. 이 작품은 애초 1994년 3월호 『현대시』에 발표될 당시에 "등굽어 찌든 할망이, 가랑비 속 미끈거리는 산비탈을 기어오른다.//억수 같은 빗발이라도 저 푸른 火焰을 잠재우진 못하리/불을 보려 함이가, 할망아!/세월의 더께에 남루한 육신을 끌고 위태한 산비탈을 오르는 할망//큰 나무는 오래 타고, 밤새 내리는 빗속에서/잡목들이사 잘려져 쏘시개가 된들 어떠리/큰, 한, 나무 불사르기 위해 온 산이 붉게 물들었다."이었다. 그러나 시인은 시집에 수록하면서 연과 행갈이를 단행하였다. 박찬은 발표한 작품에 대한 시인적 책임감을 이행하고자 시집을 발간하기 전까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박찬의 시작품들에 대한 원전 확정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의 어디에도 종교적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한 허리 굽어진 할머니가 비가 내려 미끄러운 산비탈을 오른다. 그녀의 등산은 '불을 보려 함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3연에 이르러 빗속에서 '온 산이 붉게 물들었다.'는 종결어미에 의해 "붉은 먼지밖에 일지 않는 화염길"(「화염길」)에 진입한 할머니의 등산이 그것과 관련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할머니는 늙은 여자를 가리키므로 당연히 다비장과 연관된다. 그런데 시인은 그녀의 형상을 '등굽어 찌든'과 '세월의 더께에 남루한 육신'으로 구체화시켜 죽음에 임박한 할머니인 줄 시사한다. 할머니가 산에 오르는 행위는 '火焰/화엄'으로 들어가기 위한 발걸음이다. 그녀는 다비장의 주인공인 '큰 나무/큰 스님'에 대비되는 '잡목'이다. 시인은 이처럼 대비적 상상력에 터하여 '열화의 길'로 떠난 스님과 떠나보내는/떠날 노파의 사/생을 대비한다. 그 대비는 밤새 듣는 비의 하강에 의해서도 꺼지지 않을 정도라서 '온 산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하여 산은 "원시적인 불빛의 그윽함"(「山寺」)으로 가득해진다.

행 중에서 '큰, 한, 나무'는 '큰 불 사르기 위해, 한(번) 불사르기 위해, 나무 불사르기 위해'처럼 '불사르기 위해'에 세 번 걸친다. 그것이 큰불, 한불 나무불로 세 번 솟구치니, 밤새 내리는 빗속에서도 온 산이 붉어져 '열화의 길'이 밝다. 시인은 "이제 바람에 날려버릴 한줌 가루"(「당혹」)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혼연일체로 본 우주론적 존재관"[18]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저 푸른 火焰'은 색채 대비를 통한 형용 모순이다. 물질이 연소할 때 가장 높은 온도에서 푸른빛을 낸다는 과학적 사실이 시인에게 모순된 표현을 동원하도록 강권한 것이다. 왜냐하면 박찬에게 푸른빛은 "사물의 가장 뜨겁고 고양된 순간을 장식하기도 한다"[19]는 점에서,

18) 오세영, 『변혁기의 한국시』, 새미, 1996, 349쪽.
19) 이희중, 「해찰, 그리움을 다스리는 방식」, 박찬 시집 『먼지 속 이슬』 해설, 문학동네, 2000, 91쪽.

빗발조차 이기고 온 산을 붉게 물들일 만큼 관능적인 색이다. 그 빛은 '다시는 못 볼 푸른 하늘'을 닮은 색이다. 이와 같이 붉은 빛 속에서 푸른 색을 찾아내는 박찬은 '가장 뜨겁고 고양된 순간'에 죽음을 맞았다.

지루하고 막막한 날이 끝나간다
그 끝에서 홀로 붉게 타는 칸나여, 안녕!
다시는 못 볼 푸른 하늘이여, 너도 안녕!

-「소리를 찾아서」[20] 전문

이 작품의 부제는 '서래봉 가는 길'로, 2007년 그의 사후에 간행된 유고시집『외로운 식량』의 맨 뒤에 수록된 작품이다. 시집의 성격상 그의 손으로 묶인 게 아닐 테고, 시의 문면에 노골적으로 드러난 임종의 징후가 밝혀지지 않은 편자로 하여금 이 시를 종시로 삼게 했을 터이다. 그렇더라도 박찬의 생애와 시적 편력을 곧이곧대로 마름한 듯하여 섬뜩하게 안타깝다. 특히 가뭇없이 나타난 '칸나'는 시인의 모교인 정읍동국민학교의 화단에 지천으로 피었던 꽃이라서, 병석에서 죽을 때까지 향리를 잊지 못하고 돌아갈 날만 기다리던 시인의 표정을 보는 듯하다. 그 붉은 칸나를 시인이 죽음의 문턱에서 호명한 건 놀랍다. 그는 칸나의 '붉게'와 "서슬퍼런 한으로 가득한 하늘"(「이 땅에 무슨 일이」)의 '푸른'을 대비하여 자신의 생에 은닉된 '지루하고 막막한' 모순과 판이한 이승/저승의 빛깔을 극적으로 묘파하고 있다. 이 표현은 "칸나, 그 붉은 꽃잎 다 떨어지고, 하늘 더욱 푸르러지면, 비로소 알게 될까"(「칸나꽃 질 무렵」)의 재출현이다. 박찬은 임종시의 부제를 '서래봉 가는 길'로 정하여 귀향의지

20) 박찬,『외로운 식량』, 문학동네, 2008, 117쪽.

를 드러내고 있다. 그곳 정읍에는 '깔깔대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으므로, 박찬은 출향한지 40여년만에 '소리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셈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찬은 상리마을의 불분명하고 불길한 안개 속에서 나와 '붉게' 타는 '푸른 하늘'로 나아갔다. 그는 평생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시인이다. 그런 탓에 그의 시편에는 안개가 내리듯이, 시적 분위기를 장악한 정치적 사건들이 배치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박찬이 편협한 권력욕에 충만한 군부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된 갑오동학혁명과 4·19민주혁명의 도화선이었던 정읍환표 사건의 본고장 출신이란 사실의 증명이다. 그는 생리적으로 반외세 반민주 정신을 사상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정읍사」의 그리움을 선험적 정서로 장치한 '물맛같은 백성'이었다. 그는 정읍의 도처에 적층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단면을 놓치지 않았듯, 서울에서도 소시민들의 애환을 못 본 체 눈감지 않았다. 곧, 그의 시적 감수성은 어린 시절 '수도곶'에서 할머니로부터 배우고 들은 바의 확장된 재생이었다. 그의 사유가 넓어지는 순간마다 불교적 상상력이 힘을 보태 시세계의 심화를 견인하였다.

박찬은 시작 생활 내내 고향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 않았다. 대개의 시인들이 늙어서야 고향을 찬미하며 생을 마감하는 의식을 치룬데 비해, 그는 출발선상부터 고향을 그리워하며 등단하였다. 특히 그는 할머니라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등장시켜 시적 감동을 자아내는 한편, 시 속의 서사적 시간을 전통적인 차원에 편입시켰다. 그에 따라 박찬의 작품에는 고향민들의 애환이 할머니의 주름살로 돋아나 도드라지는 형

국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효과적 수단이었다. 그들은 역사의 주역이면서도 언제나 객체에 불과했던 민초들로서, 후기시에 현저해진 소시민적 일상의 시화를 앞서 감당한 인물들이다. 박찬은 낭만파 시인답게 여행벽을 지녔다. 그는 산사를 찾으면서 여행을 인생과 동일시하게 되었고, 유별난 불교적 상상력은 할머니의 부재로 악화된 이생의 허무를 극화하도록 충동하였다. 그의 시마다 소슬한 폐허의식이 농밀하게 육화되어 있는 까닭이다. 폐허에의 그리움은 그를 존재케 해준 현실에서는 '화염길' 같은 험로로 인도했지만, 죽어서는 '화엄'의 세계로 진입하도록 도와준 생의 도반이었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박찬, 『수도곶 이야기』, 문학비평사, 1985.

박찬, 『그리운 잠』, 둥지, 1989.

박찬, 『화염길』, 민음사, 1995.

박찬, 『먼지 속 이슬』, 문학동네, 2000.

박찬, 『외로운 식량』, 문학동네, 2008.

박찬, 『우는 낙타의 푸른 눈썹을 보았는가』, 해냄, 1997.

<단행본 및 논문>

문덕수, 「서」, 박찬 시집 『수도곶 이야기』, 문학비평사, 1985.

박진환, 「수도곶 이야기의 시세계」, 문학비평사, 1985, 113~131쪽.

이희중, 「해찰, 그리움을 다스리는 방식」, 박찬 시집 『먼지 속 이슬』 해설, 문학동네, 2000, 85~95쪽.

정한용, 「이야기형식을 통한 존재의 탐구」, 박찬 시집 『그리운 잠』 해설, 둥지, 1989, 119~130쪽.

홍용희, 「자연의 운행 원리와 영생의 시학」, 박찬 시집 『외로운 식량』 해설, 문학동네, 2008, 118~130쪽.

홍용희, 「영원히 그리운 것은—박찬의 시세계」, 『대지의 문법과 시적 상상』, 문학동네, 2007, 340~352쪽.

홍정선, 「마음의 행로를 따라가는 시」, 박찬 시집 『화염길』 해설, 민음사, 1995, 101~113쪽.

Arnold. Hauser, 염무웅·반성완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근세편·하, 창작과비평사, 1974.

<Abstract>

Longing for Ruins

- Theory about Park Chan

Choi, Myoung-pyo

This article explores Park Chan's poetic world. From the beginning of his literary career, he deepened his poetic world based on his deep consciousness of hometown. His hometown consciousness does not remain in obsessive affection towards some physical space but extends its meaning to some neglected space. And to him, hometown is the source of poetic imagin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is the mental ground of citizens which is getting worn away with industrialization. To maximize the interest in his hometown, he put his grandmother into it and narrated his childhood memory. In particular, he frequently uses the dialect of Jeongeup to secure poetic reality. This attempt of Park Chan's, in fact, doubled universality in his hometown poem.

Park Chan represents the feelings of low-income dwellers embodying trivial events they face in the outskirts staying in there not being able to enter the center of a big city. This is the reemergence of nameless people of his hometown who appeared in the

initial period, too. By setting the people or low-the income dwellers' trivial matters as its background, he caricatures contemporary history, and as he does not avoid critical comments to society, he basically sticks to humanistic sight. His embracement gets support from Buddhistic imagination and becomes sublimated to the will of transcending from this world. Even though he defines reality as the road of flame, he still knows that it is the very entrance to the world of Avatamska. In this sense, Park Chan's hometown consciousness is not only a poetic start of his but a ruling place that leads to the ultimacy.

Key Words: Park Chan, Jeongeup, hometown consciousness, the road of flame, Avatamska

이 논문은 2013년 1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2월 15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3년 2월 20일 게재 확정되었음.